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책브리핑

2017년 7월 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월 6일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7. 6.(목)	담당부서	수출입과
담당과장	이민우 과장(044-203-4040)	담 당 자	이중엽 서기관(044-203-4043) 성하진 주무관(044-203-4045)

'22년까지 중소·중견기업 무역보험 65조 원 지원

- "Find Buyers" 서비스, 중소기업 직접투자 등 중소중견 지원 대폭 강화 -
- 무보 설립 25주년 계기, 산업부 「중장기 무역보험 정책방향」 발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('92.7.7. 설립)을 계기로 "국민과 기업들에게 신뢰받는 무역·투자·금융 안전망"이라는 비전 하에 향후 5년('18~'22년)을 향한 **「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」**을 마련했다.

○ 주요 내용은 **▲ 중소·중견기업 지원에 역점, ▲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시스템을 전면 개편, ▲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, ▲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무역보험기금 내실을 강화**하는 것이다.

□ 산업부가 이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무역보험공사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무역보험이 우리나라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지만,

* '92~'16년 간 전체 수출액(7.35조불)의 약 27% 지원(1.97조불)

○ 수출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,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시장 다변화, 주력 산업에 대한 후발국 추격 등 **새로운 도전과 수요에 직면해있어 신속히 혁신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시급**하기 때문이다.

○ 또한 최근 거액보험 사고를 계기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거액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.

□ 이에 따른 중장기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, **'22년까지 중소·중견기업 지원 규모를 연간 65조원**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.
('16년 기준 44.3조원 지원)

① 특히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·벤처기업, 수출성장기업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**중소·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** 한다.

* (예시) 중소.중견기업 보험료 할인의 경우 현재 30%로 동일
→ 향후 창업.벤처기업 50%, 수출성장기업 40%, 성숙.안정기업 20%로 차등화

② 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신청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**"(가칭)익스프레스 서비스"*를 도입**하고, 중소·중견기업들이 수출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**"수출 공급망 금융보증" 종목을 신설**한다.

③ 중소·중견기업들이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**특정 1개국 수출비중 50% 이상 기업이 타국 진출시 신규 수출보험료**(2년 이내 단기수출시)**를 50% 할인**하고, 무보가 국내 수출업체 대상으로 유망 해외 수입자를 발굴·주선하는 **"파인 바이어스(Find Buyers)" 서비스**도 도입한다.

□ 또한, **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**한다.

○ 보험 인수건의 **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점수화하여 높을 경우 우대**하고,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**유턴기업에 대한 한도, 보험료 우대** 등을 추진한다.

○ 국내 부가가치가 일자리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,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% 인정하되, **위탁가공·중계무역의 경우 국내 생산·이익 등 비중에 따라 수출실적을 최대 70%만 인정**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**4차 산업혁명에 대응**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.

○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책정시 기존의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·기술력(연구개발(R&D)투자, 특허) 등 **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**한다.

○ 12대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·육성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지원과 연계하여 **무역보험기금 내 가용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를 최초로 시행**한다.

* 12대 신산업 : 전기·자율차, 바이오헬스, 친환경선박, 항공·드론, 에너지신산업 등

□ 마지막으로, 보다 **체계적으로 무역보험 리스크를 관리**할 방침이다.

○ **거액사고를 방지**하기 위해 "신용평가 ⇨ 인수심사 ⇨ 사후관리"의 무역보험 **지원 전(全)주기에 걸쳐 제도를 보완**한다.

① 신용평가 단계 : 최신 재무제표를 활용하고, 수출.수입기업 현장실사 대상을 확대하여 부실징후를 선제적으로 차단

② 인수심사 단계 : 금융성 상품에 대해 매년 한도를 재심사하고, 총여신 대비 무역보험 의존도가 과다하게 높은 기업에 대해 한도를 제한하여 사기 대출을 방지

③ 사후관리 단계 : 모니터링.감리 등을 강화하고, 범죄형 보험사고 발생시 원인분석과 제도개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 체계를 도입하여 만일 사고에 대비

○ 특정 국가, 업체에 리스크가 과도하게 편중되었는지 여부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(Big Data) 등 신기술 기반의 **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**할 계획이다.

□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이 과거 2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, **미래 25년에도 중소·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우산**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.

※ 붙임 :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(안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이중엽 서기관(044-203-40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

중장기('17~'22년) 무역보험정책 추진 방향(안)

1. 수립 배경

□ 무역보험은 '무역보험공사' 설립('92.7월) 이래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**수출 확대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**

* '92~'16년 간 전체 수출액(7.35조불)의 약 27% 지원(1.97조불)

○ 특히 '98년 외환위기와 '08년 금융위기 등 **국가적 경제위기**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지원 확대로 **신속한 극복 견인**

* 보험지원 확대 例 : ('98) 15조원 → ('00) 36조원, ('08) 92조원 → ('10) 187조원

□ 현재 무역보험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**새로운 도전에 직면**

○ 수출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**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**와 **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한 요구**가 높아지고 있음

* 중소.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비중('14, 20.2% → '16, 28.3%)은 늘어나고 있으나, 수출에서 중소.중견이 차지하는 비중('16, 37.5%에 비하면 아직 낮은 상황

○ 美·中 보호무역주의, 브렉시트 등 기존 **주요 수출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**로 시장 다변화에 대한 니즈도 확대

* 우리 수출은 對美.對中 비중이 약 40%에 달하여 주요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음

○ 주력 수출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, **4차 산업혁명**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**신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**이 요구됨

□ 한편, 최근 거액보험 사고를 계기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**사고방지를 위한 쇄신과 리스크 관리**도 필요

* '16년말 기준 무역보험기금 총액은 1.2조원으로 기금배수(유효계약액/기금총액)가 73.4배로 높아 기금 건전성 해소가 중요

⇒ **새로운 도전에 신속히 대응**하면서 **대외적인 신뢰를 회복**할 수 있도록 **중장기적인 혁신 방향을 수립하여 이행**하는 것이 시급

2. 정책 추진 방향(안)

◈ 비전 :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뢰받는 무역·투자·금융 안전망

⇒ 이를 실현하기 위해 **4대 추진 과제**를 차질없이 이행

① 중소·중견기업 및 신흥시장 진출 지원에 역점
②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 시스템 전면 개편
③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
④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무보기금 내실 강화

1 중소·중견기업 및 신흥시장 진출 지원에 역점

1 중소·중견수요에 부응한 무역보험 서비스 질 제고

* 중소.중견기업 지원실적 : ('16) 44.3조원 → ('22) 65조원으로 확대

○ 벤처기업, 수출성장기업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존의 획일화된 **중소·중견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**

【 (예시) 중소·중견기업 보험료 할인 우대 차등화 】

	<기존>		<향후>
창업·벤처단계			**50%**
수출 성장단계	30%로 동일	⇨	**40%**
성숙·안정단계			20%

○ 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**신청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"(가칭)익스프레스 서비스"** 도입

* 예시 : 20만불 이내에 한해 단기수출보험의 온라인 신청시 실시간 자동한도 부여 (美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30만불 이하 소액인 경우 신청후 5일 이내에 수출보험한도를 제공하는 Export Express 제도를 벤치마킹)

○ 중소·중견기업들이 수출 대기업에 납품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**"수출 공급망 금융보증"** 도입

2 중장기 프로젝트 분야에서도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강화

○ 중소·중견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를 촉진할 수 있도록 **해외사업금융보험, 수출보증보험** 이용시 **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**

* 해외사업금융보험 : 국내기업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게 대출 원리금 미회수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
* 수출보증보험 :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에게 이행 미준수로 보증채무가 발생했을 때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

○ 중소·중견 맞춤형으로 신속한 보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중장기 수출보험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**

* 무보-국내시중은행 간 협의를 통해 중소 프로젝트에 맞게 금융계약서 및 보험증권 조항들을 표준화·모듈화하여 보험 신청시 심사 소요시간·비용을 최소화

○ 해외 우량발주처 프로젝트를 수주했음에도 신용도가 낮아 일반적인 보험심사에서 탈락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**기술성, 사업성 기반으로 재평가**하여 지원하도록 **패자부활전 제도 활성화**

3 보호무역 극복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

○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특정 1개국 수출비중 50% 이상 기업이 **타국 진출시 신규 수출보험료**(2년 이내 단기수출시) **50% 할인**

○ 무보가 국내 수출업체 대상으로 **유망 해외 수입자를 발굴·주선**하는 **"Find Buyers" 서비스** 도입

* 무보는 현재 44만개 해외 수입자 신용정보 DB를 보유, 향후 KOTRA 등과 협력하여 현지 유통기업 등 우량 수입자를 발굴하여 DB를 확충하고, 수출기업들에게 제공

○ 기업들의 시장개척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**현장밀착형**으로 신속히 신용조사, 보험 인수심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유망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지사를 개편·확대**

- 해외지사가 커버할 수 없는 지역은 **'현지방문 심사팀' 운영** 등을 통해 인수심사를 적극 지원

* 현재는 각 부서별 심사인력들로 임시 구성·운영 중이나 향후 상설조직으로 확대

2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 시스템 전면 개편

1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한 무역보험 지원 추진

○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 인수건의 국내 **고용창출 효과를 점수화**하여 높을 경우 **심사시 우대**하고, 고용축소 효과가 큰 사업은 지원을 지양

* 美수출입은행의 경우 "Job Creation through Export Promotion"이라는 슬로건 하에 무역보험을 일자리 창출 효과와 연결하여 운영중

-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**유턴기업에 대한 한도, 보험료 우대** 등 추진

○ 무역보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, 성과홍보 등 기초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**일자리 창출효과 지표를 개발, 매년 측정 시행**

* 주기적인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·분석을 통해 무역보험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무역보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구축

○ 국내 부가가치가 일자리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, **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% 인정하되**, 위탁가공·중계무역의 경우 국내 생산·이익 등 비중에 따라 최대 70%만 인정

2 고용친화적 산업인 서비스·소비재 분야 수출 확대를 촉진

○ 수출 잠재력이 높은 SW, 물류, MRO(각종 유지보수) 등 **유망 서비스 분야**를 타켓팅하여 **맞춤형 패키지 보험 제공**

* 예시 : SW, MRO는 주로 고위험국과 장기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을 감안, 대금미회수위험 및 환변동위험을 커버하는 패키지 제공

○ 5대 소비재*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**해외 거점 유통업체** 등 주요 바이어 앞으로 한국제품 수입 관련 **보험한도를 선제적으로 제공**

* 화장품, 의약품, 농수산식품, 생활용품, 패션의류

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

1 신산업 분야 무역보험 지원 강화 및 기금재원 투자 추진

○ 한도책정시 기존의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·기술력(R&D투자, 특허) 등 **미래 성장성 중심 심사체계 마련**

○ 해외기업이 보유한 **신산업 핵심기술**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**M&A 자금조달** 관련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적극 지원

*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에 SPC를 설립하여 신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할 경우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게 대출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

○ 12대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·육성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원과 연계하여 **무보기금 내 가용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** 시행

* 12대 신산업 : 전기·자율차, 바이오헬스, 친환경선박, 항공·드론, 에너지신산업 등

□ 산업트렌드 변화 파악·대응을 위한 연구·조사 기능 강화

○ 산업별 트렌드·리스크를 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보험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리서치 전담조직으로서 **"(가칭)글로벌 산업연구소"**를 무보 내에 신설(기존 1개팀 규모에서 별도 연구소 조직으로 대폭 확대)

□ 첨단 고부가 중장기 프로젝트 수출 지원 강화

○ 스마트 플랜트 건립, 차세대 통신망 구축 등 첨단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확대에 부응하여 유망 발주처 대상으로 **중장기 대출한도를 선제적으로 제공**, 우리기업의 수주를 촉진

○ 단순시공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프로젝트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설계, 투자, 운영 등 사업 全과정을 주도하는 **투자개발형 프로젝트의 활성화**를 위해 **해외투자보험을 적극 지원**

* EPC 중 부가가치가 큰 엔지니어링 관련 해외 기업 M&A 지원, 국제기구(MIGA) 등과 협업하여 신흥시장 프로젝트 관련 투자보험 확대 추진

4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무보기금 내실 강화

□ **거액사고 방지를 위한 보험지원 全 주기에 걸친 제도쇄신 추진**

○ **신용평가 단계** : 최신 재무제표를 활용, 수출·수입기업 현장실사 대상을 확대하여 부실징후를 선제적으로 차단

○ **인수심사 단계** : 금융성 상품에 대해 매년 한도를 재심사, 사기 소지가 있는 거래(예: 수입자 아닌 제3자 대금결제) 통제, 총여신 대비 보험 의존도 높은 기업에 대한 한도 관리 등 심사기준 강화

○ **사후관리 단계** : 사후 모니터링·감리 등을 강화하고, 범죄형 보험사고 원인분석·개선 등 피드백을 통해 만일 사고에 상시 대비

□ **통합적·지능적 리스크 관리 추진**

○ 통합적인 시각에서 특정 국가, 수출업체, 수입업체에 대한 과도한 리스크 편중 여부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AI, Big Data 등 신기술 기반 **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**

○ 기금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활용하는 적정자본 관리지표인 **RBC(Risk Based Capital)를 무역보험에 도입**

□ **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회수 강화**

○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채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, **노후·비우량 채권은 매각**하고, **유망 채권에 회수역량 집중**

○ 해외 채권추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무보 해외지사 기능을 확대하고, 지사가 없는 경우 KOTRA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旣 구축된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